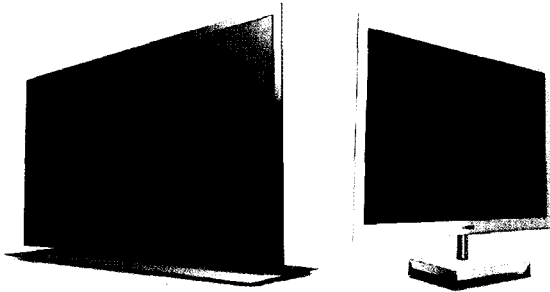


삼성전자, 세계에서 가장 얇은 6.5mm 두께 TV
 CES서 첫 선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6.5mm 두께의 LED TV를 1월8일(목)부터 11일(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멀티미디어 가전(CE) 전시회인 'CES 2009'에 첫 선을 보인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두께 7mm대 벽을 허문 세계에서 가장 얇은 6.5mm 두께 LED TV를 통해 TV 슬림화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TV업체간 '슬림 경쟁'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번 CES 2009에 선보이는 6.5mm 두께 LED TV는 삼성전자가 작년 8월말 출시한 현존 TV 중 가장 얇은 44.4mm 두께의 '보르도 850' LCD TV보다 무려 6배 이상 슬림하며, 국내 출시된 슬림폰(10mm대)보다 얇다.

삼성전자는 작년 8월말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 2008에 8.9mm 두께의 LED TV를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비공개로 선보여 소니의 9.9mm LED TV와의 슬림 경쟁에서 우세를 보이며 TV 슬림의 진화를 주도했다.

그 이후 5개월도 안돼 6mm대 두께의 TV 제품을 선보임

으로써 TV 슬림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는 동시에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선보이는 6.5mm 초박형 LED TV는 초슬림 기록 뿐만 아니라 화질과 친환경성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동영상을 잔상없이 부드럽게 구현하는 최신 기술 '오토모션 플러스 240Hz'가 탑재되어 있다.

이 밖에도 넓어진 색표현 영역에서 더욱 풍부한 색을 표현하는 와이드 컬러 컨트롤Pro(Wide Color ControlPro) 기술과 기존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절감 수준보다도 더 월등한 '인텔리전트 파워 세이빙' 기술까지 갖추어 그야말로 전 부문에 걸쳐 완벽을 기한 제품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TV 업계의 초슬림화는 물론 고화질, 친환경성을 강화할 수 있는 LED(발광다이오드) 백라이트를 탑재하고 240Hz, 울트라 슬림 디자인 등 최신 기술을 탑재한 'LED TV' 라인업을 40인치부터 55인치까지 대폭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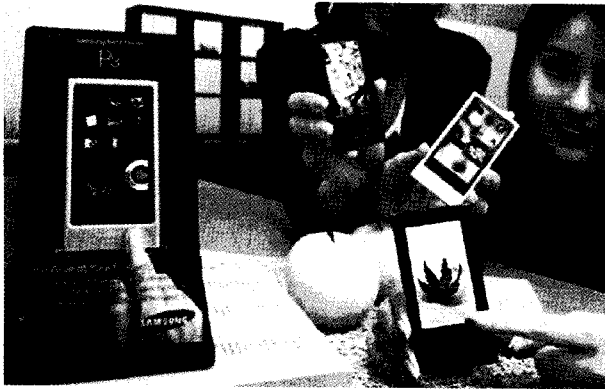
특히 'LED TV'를 PDP, LCD 와 별개의 TV 카테고리로 소구하는 LED TV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 전시회부터 "The New Species, Samsung LUXIA LED TV" 라는 슬로건으로 LED TV를 특화하여 소구하고, 상반기 출시와 동시에 광고, 온라인, 프로모션 등 전방위적인(Holistic)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윤부근 부사장은 "이번

6mm대 초슬림 LED TV를 선보여 세계 TV 업계에 또 하나의 위업을 달성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09년에는 '차세대 TV'로서의 LED TV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세계 TV 리더로서의 자리매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 햅틱UI MP3 'P3', 해외서 賞福



햅틱 UI를 탑재한 삼성전자의 전략 MP3 플레이어 'YP-P3'가 출시 전부터 해외에서 각종 Award를 수상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제 블루투스 기술 협의체인 '블루투스 SIG(Special Interest Group)'는 미국에서 현지시간 9일(한국시간 10일) 삼성전자 MP3 플레이어 'P3'가 Music 카테고리 최고 제품(Best of CES 2009)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블루투스 SIG는 지난 2006년부터 CES에 출품된 제품들 중에 블루투스를 탑재한 여러 제품의 성능과 사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문별 최고 제품을 매년 발표해왔다.

'P3'는 휴대폰과 연동해 음악감상 중에도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는 블루투스 핸드프리 기능과 다른 휴대폰이나 MP3 플레이어와 전화번호부, 사진 등의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블루투스 파일교환 기능이 가능하다.

또, 두 개의 블루투스 스테레오 헤드셋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 유선 1명을 포함해 최대 3명까지 음악과 동영상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블루투스2.1+EDR을 적용해 가용거리 또한 25m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P3'의 최고 제품 선정은 작년 'P2'의 대상 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란 점에서 삼성전자 MP3 플레이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삼성전자 'P3'는 이번 블루투스 SIG의 최고 제품 선정과 더불어 2009 CES 혁신상 Portable Media Player 부문에서도 수상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올해 최고의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햅틱 UI의 감성과 편의성을 백분 활용한 'P3'는 1,600만 컬러의 3인치 강화유리 와이드 TFT LCD, 고급 알루미늄 메탈 소재 외관에 삼성의 독자 음장기술인 DNSe™ 3.0, 세계최초 '와이즈 볼륨(Wise Volume)'과 '바이브 우퍼(Vibe Woofer™)'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

삼성전자 MP3사업팀장 최영규 상무는 "블루투스 최고 제품 2년 연속 수상과 CES 혁신상 수상은 삼성 MP3 플레이어의 우수성이 입증된 증거"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 사용 편의성을 적용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 사상 최초 100조원 매출 돌파!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연결실

적 기준으로 사상 최초 매출 100조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해 연결기준으로 2007년보다 23% 늘어난 118.38조원의 매출과 5.7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본사 실적 기준으로도 정보통신(27%), LCD(23%), DM(20%) 등의 고른 성장 속에 본사 기준으로 2007년보다 15%(9.7조) 성장한 72.95조원의 사상최대 매출과 4.13조원의 영업이익, 5.53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2008년 4분기에는 메모리와 LCD의 판가하락 심화, 휴대폰과 디지털TV등 판축을 위한 마케팅 비용 급증(전분기 대비 0.9조원의 마케팅 비용 증가) 등 부품과 세트 모두 전분기 대비 실적이 악화되어 본사기준으로 18.45조원의 매출과 -0.94조원의 영업손실, -0.02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창립 40주년 아카데미 대축제



삼성전자가 국내 1위의 IT제품들을 특별한 혜택과 함께 장만할 수 있는 아카데미 대축제를 6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가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예년보다 더욱 다양한 제품과 풍성한 혜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초경량 프리미엄 노트북 X360이나 X460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명품 노트북 가방과 마우스, 4GB USB 메모리 등의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또한 TV 겸용 풀HD 모니터(T240HD, T260HD)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용평리조트 할인권 3종과 유명 스포츠 브랜드 Helly Hasen의 스포츠백 등을 제공한다.

프린터를 구입시에도 구매 모델에 따라 무선 광마우스, 컬러레이저프린터 전용지 등 다양한 사은품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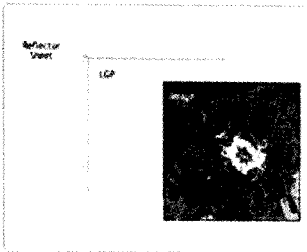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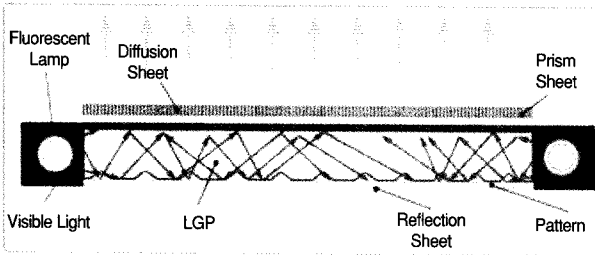
이 외에 원목 질감의 프레임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삼성 디지털 액자를 구입한 고객에게 2GB SD카드, 햅틱 UI를 탑재한 프리미엄 터치스크린 MP3플레이어 '엠펙 P3'를 구입한 고객에게 던킨도너츠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초경량 프리미엄 노트북 X360·X460과 새로 출시된 삼성전자 외장 HDD를 포함한 '프리미엄 패키지', 노트북과 모니터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듀얼 패키지', 데스크톱과 모니터, 프린터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아카데미 패키지' 등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패키지를 선보인다.

(주)엘앤피아너스

(주)엘앤피아너스, 레이저 LGP 한솔LCD에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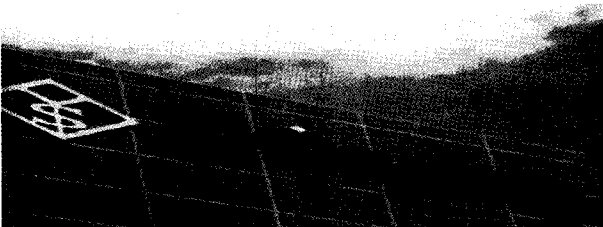
대덕테크노벨리에 양산시설을 갖춘 엘앤피아너스의 대전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엘앤피아너스는 29일 대전공장 본격 가동과 함께 레이저 LGP(Light Guide Plate, 도광판)를 내년 1월부터 한솔 LCD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레이저 LGP는 평판TV 시장의 추세인 초슬림 LED TV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부품으로, 엘앤피아너스는 향후 대형 TV Set 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초슬림 LED TV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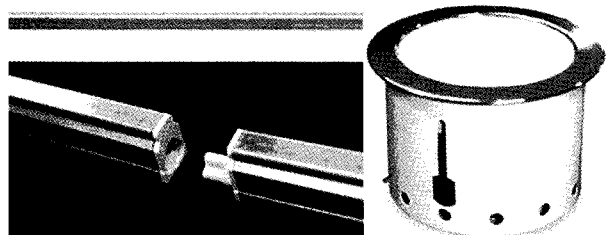
(주)신양엔지니어링



삼성협력업체 평가등급 'A' 신뢰도 높은 기업으로 평가
지난 2008년 9월23일 삼성에서 협력업체 평가가 아래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되었다. 삼성에서는 실적평가 평가 항목인 T.(Technology), Q(Quality),

R(Responsiveness), D(Delivery), C(Cost)을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 (주)신양엔지니어링은 종합평가점수 102점을 획득, 최고평가 등급인 A등급을 받았으며, 협력사로써의 자질(資質)과 좋은 제품을 양산하는 기업, 협력업체로서 신뢰도 높은기업으로 평가되었다. 전년도 2007 종합평가등급은 B등급이었다.

(주)알에프텍



LED조명 지하철역사 시범교체사업, (주)알에프텍 수주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08 LED조명 지하철역사 시범적용 사업에 대한 최종 낙찰자로, 알에프텍을 선정하였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반월당역사 조명 전체 교체사업은 (주)알에프텍이 약7억원에 수주했다.

알에프텍은 공동수급업체로 (주)포에프와 컨소시엄을 구성, 반월당역사의 전체 형광등 3000여대를 LED조명으로 교체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상징성 있는 모델 건축물에 LED조명 우수제품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LED조명 보급기반 구축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유도"하는데 있다고 한다. 또한, 본 시범사업은 시공제품의 품질 및 성능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준공 완료 후 2년간 사후관리를 실시 및 지하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주)EMW안테나



EMW안테나 휴대폰용 안테나로 세계시장 공략

휴대폰용 안테나 업체인 EMW안테나(대표 류병훈 www.emw.co.kr)는 일본 종합무역상사인 가네마쓰(兼松)와 손잡고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다.

EMW안테나는 일본 가네마쓰와 세계시장 진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2일 체결했다.

EMW안테나는 일본 모바일 TV 방송인 원세그를 수신하는 휴대용 블루레이 플레이어용 소형 안테나를 일본 가전 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가네마쓰의 영업력을 활용, 일본 및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류병훈 EMW안테나 대표는 “지난해 노키아 휴대폰을 주문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에 휴대폰용 안테나를 공급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가네마쓰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종합 무역상사로 전 세계에 44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이 업체는 IT, 철강, 생명과학, 에너지, 식료품 등의 시장 수출입 업무를 대행한다.

EMW안테나, 13억원 공급계약

EMW안테나는 16일 샤프 일렉트로닉스 한국지사와 13억 4000만원 규모의 D-PAD GPS 안테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이 회사 지난해 매출액의 4.27%에 해당한다.

LG전자 홈시어터, 인도네시아 ‘최우수 디자인 대통령상’



LG전자 홈시어터가 인도네시아 굿디자인 시상식에서 「최우수 디자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최우수 디자인 상 (Indonesia Good Design Selection)은 제품 디자인과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실제 판매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디자인 상이다.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LG전자의 홈시어터(모델명: LHT-3602ME)는 인도네시아 고객에 대한 철저한 인사 이트 발굴을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의

성공을 기반으로 현재 동남아와 호주 등 10여개 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 제품은 협소한 인도네시아 일반 가정의 특성을 감안, 홈시어터 사용 환경을 최적화해 개발됐다.

방의 앞쪽과 뒤쪽에 스피커를 배치하는 일반적인 홈시어터와 달리 스피커를 전면에만 배치했으며, 필요에 따라 스피커를 떼고 붙일 수 있게 설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젊은 층에 인기 있는 댄스뮤직인 '단뉛(Dangdut)'을 감상하기에 알맞게 중저음을 강화함으로써 고객 선호 음질을 구현했다.

LG전자는 고객 인사이트를 반영한 홈시어터 개발을 위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고객의 집을 수시로 방문해 제품 사용환경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제품을 개발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LG전자 홈시어터는 시장점유율 39%로 경쟁업체와 15% 이상의 격차를 벌이며 확고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9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장인 이기주 부사장에게 직접 상을 전달하며, "인도네시아 문화에 적합한 하이테크놀러지 제품과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줄 것"을 당부했다.

LG전자 이기주 부사장은,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경제불복화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고객인사이트 발굴을 통해 현지시장에서 확고한 브랜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은 앞으로

도 고객 환경과 니즈를 철저히 파악해 제품화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은 06년과 07년 2년 연속 인도네시아 '최우수 수출기업상'을 수상했으며, 08년에는 '최우수 투자기업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굿디자인 최고상 수상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LG전자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홈시어터, 냉장고, 모니터, 에어컨, 세탁기, 오디오 등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LG전자, 인테리어 컨셉트 DVD 플레이어 선배



LG전자가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인테리어 컨셉트의 DVD 플레이어 2종(모델명 DV4S, DV4M)을 19일 출시했다.

기존 DVD 플레이어의 박스형 디자인에서 탈피해 △벽걸이나 액자 형태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해 스타일을 더욱 살렸고(DV4S 모델) 한국의 우아한 곡선미로 고풍스러운 느낌(DV4M 모델)을 준다.

DV4S 모델의 경우 터치센서 버튼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디빅스(DivX) HD동영상 파일 재생이 가능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 파일을 HD급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DV4M 모델은 CD에 담긴 음악을 MP3 파일로 자동 변환해 MP3 플레이어 등에 저장할 수 있는 USB 다이렉트 레코딩 기능을 갖췄다.

두 제품 모두 HDMI단자를 채용해 일반 SD급 DVD화질을 HD급의 선명한 화질로 업그레이드해 준다.

LG전자 한국지역본부 HE(Home Entertainment)마케팅 팀장 이우경 상무는 “고정관념을 깬 디자인과 강력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겸비한 제품으로 DVD 플레이어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듀얼 심카드 터치폰'으로 CIS/중국 프리미엄시장 공략



LG전자가 21일 비즈니스맨을 겨냥해 두 개의 GSM(유럽식 이동통신방식) 가입자인증모듈(SIM)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풀 터치스크린 방식의 'LG-KS660'을 CIS 및 중국 지역에 출시한다.

이 제품은 번호 두 개를 한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어 개인용과 업무용 휴대폰을 따로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해외출장 시 출장 지역의 SIM 카드를 미리 장착해두면 별도의 로밍(Roaming) 작업이 필요 없다.

특히 중국은 성(省)과 성 사이를 이동할 때도 로밍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도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

'LG-KS660'은 대기화면에 주요일정은 물론 메모, 달력 등이 위젯 형태로 한꺼번에 표시되고, 이를 터치하면 손쉽게 일정관리가 가능한 비즈니스 전용 프리미엄급 풀 터치스크린폰이다.

또한, 통화 중 메모가 필요할 경우 종이와 펜을 찾을 필요 없이 터치스크린 위에 바로 필기할 수 있는 '이미지 메모(Image Memo)' 기능이 지원된다.

특히,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는 통화, 일정관리 등 비즈니스 관련 기능을 모두 Off 시켜 개인만의 휴대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LED 플래시가 내장된 500만 화소 카메라, 8GB까지 확장 가능한 외장 메모리 슬롯, TV-OUT, USB 2.0 등 풍부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내장했다.

LG전자 MC사업본부 안승권 사장은 “러시아, 중국 등은 듀얼 심카드폰은 물론, 풀 터치스크린폰 등 고가 제품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LG전자는 이 지역 고객 인사이트를 면밀히 분석해 신흥시장에 특화된 프리미엄 휴대폰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